



FTA TRADE REPORT



FTA FOCUS

2017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김재일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 김재일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2017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내수기업의 FTA 수출기업화를 위해 수출공급망 전반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국가 재정확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FTA 이행협력을 공고히 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수출확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FTA 관세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최초의 FTA 체결 이래 어느덧 14년차를 맞이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을 포함한 15개 협정,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도 전체 교역액의 70%를 육박하는 등 이제 FTA는 우리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재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명확하다.

그간 관세청은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용지원과 세심한 이행 관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해외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FTA 수출활용률이 78%를 넘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66%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여전히 많으며, 신규 협정들에 대한 새로운 안내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FTA 교역이 확대되면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은 한층 강화되는 한편, 3년차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가는 한-중 FTA에서는 최근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중국의 부당한 무역제제 등 통관단계에서의 비관세장벽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는 한-미 FTA 재협상 우려 등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활성화를 위한 FTA 활용지원, 원산지 검증, 대외협력 등 FTA 이행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행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Ⅱ.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지난 한 해 관세청 FTA 성과를 살펴보면, '한-중 FTA의 성공적인 활용 정착',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 '부당 FTA 특혜차단'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한-중 FTA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한-중 FTA 2단계-100일 특별 대책」하에 한-중 FTA 활용지원 전담조직인 YES FTA 차이나센터 업무를 기존 기업지원에서 C/O 발급, 인증수출자 업무 등 집행 업무까지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대(85명 → 115명) 하는 등 한-중 FTA 활용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제도적으로는 한-중 FTA 직접운송 승빙을 위해 한-홍콩 세관간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를 신설하고, FTA 활용 취약품목인 농축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딱 1장의 서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농산물 FTA 활용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중 FTA 발효초기 예상되는 통관애로를 적기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중국 천진과 대련에 차이나 협력관을 선제적으로 파견하여 FTA 품목분류 이견으로 인한 고관세 부과건 해결 등 지금까지 98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대중 수출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한-중 FTA 출범 전부터 추진하였던 관세청과 중국 해관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CO-PASS)」을 2016.12.28일자로 전면 시행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국내 원산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어 약 6,245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기업지원 부문에서는, FTA 활용 실익이 높은 중소기업 7,086개를 선정하여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세관 방문이 어려운 633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각지대 없는 FTA 활용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YES FTA 상설교육(209회) 등을 통해 8,347명의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셋째로 관세청은 철저한 원산지검증을 통해 부당한 FTA 특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무역 질서확립에 앞장섰으며, 동시에 국제 간접검증 회신기간 도래 사전안내,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사전 확인 및 검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 우리 수출기업이 검증대응 역량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Ⅲ. 2017년도 FTA 행정 추진방향

2017년 정책추진 여건을 보면,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의 BREXIT,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우려, 중국의 경제둔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수출 기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FTA 제도, 활용지원, 검증, 대외 협력 등 제반 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탄탄한 FTA 생태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FTA 수출 기업화

관세청은 2017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YES FTA BEST 3·6·9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는 중견·중소·영세 3대 기업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FTA 전문교육 확대 등 6대 추진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9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기업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금년부터 17억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전문교육을 확대 제공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류의 원활한 유통촉진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대행제도 신설, FTA-PASS의 기능 확대 및 내수기업의 직접수출 지원부터 FTA 활용기업의 검증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선진화

FTA 활용극대화를 위해서는 FTA 이행의 선진화가 중요한데, 기업의 FTA 활용비용은 최소화하고 FTA 혜택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C/O 간이발급제도 도입, 간편인증제도 활용 확대,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등 전자원산지 증명(e-CO) 제도를 APTA 등으로 확대하여 체약국간 상이한 절차로 인한 통관지연이나 특혜배제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3. 세계 최고의 FTA 관세행정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펼친 결과 세계적으로 FTA 가장 잘 활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FTA 신규 체결보다 기존의 FTA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활용지원 사업의 핵심인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원산지관리시스템 현장지원 확대, 검증관리 지원, 사후관리 강화 등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고, 전국 6대 지역세관을 중심으로 YES FTA 기동대 6대를 신설하여 더 빠르고, 더 가까이 찾아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품목별·유형별·지역별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현재 운용중인 YES FTA포털을 FTA 활용 종합정보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4. 전략적 원산지 검증을 통한 공정무역 촉진

최근 FTA 교역확대에 편승한 원산지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FTA 부정특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선략적인 원산지검증을 위한 위험관리의 고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검증행정을 표준화·간소화하여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S)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은 물품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이나 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기획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적인 원산지 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과 거래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정별 제출자료 표준화, 검증 프로세스 개선, 체약상대국과 검증 표준운영절차(Guide line)를 마련하는 등 검증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5. 新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FTA 대외협력 강화

관세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FTA 해외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FTA 이행협력 확대가 필요한

국가군을 선정하여 원산지정보 교환 등 상호 이행협력이 포함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FTA 세관협력 MOU 2020 Plan」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KOTRA 해외무역관, 해외기업지원센터 등과 협업하고, 통관애로 현장해결팀을 운영하여 반복·고질적인 FTA 통관애로를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주한공관 FTA 관계관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W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FTA 활용 장애요인들이 적시에 해소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교육지원,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내수기업의 FTA 수출기업화를 위해 수출공급망 전반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국가 재정확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FTA 이행협력을 공고히 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수출확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FTA 관세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의 FTA 지원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출기업에게 더 가까이 더 빠르게 찾아가서 지원하는 관세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